

줄서 《10대와 마주하는 인문학\_공자의 논어》 출간을 앞두고 4회에 걸쳐서 여성, 청소년, 약자, 교육에 관한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글이 공자와 논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자와 여성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화두는 아직 유효한 걸까요? 어떤 공자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자’란 한(漢) 제국 이후의 학문이니 이를테면 ‘공자주의’일 것입니다. 문화혁명 때 ‘공가점(孔家店)’을 타도하자는 주장이 공자 자체가 아니라 ‘공자 신화’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마르크스와 상관이 없듯, 공자주의 역시 공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신화화되고 과장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이른바 ‘공자의 초심’을 다루고자 합니다. 역사에서 ‘선진(先秦)’이라고 부르는 춘추전국시대 공자의 실제 목소리와 이에 관한 학문 연구를 토대로 공자를 다시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자의 언행을 평가하고, 공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중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데 대해서는 과감한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논어》에서 강조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일 것입니다. 유독 공자와 성리학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제주의 토양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공자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주소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 공자의 5대조 할머니와 연관된 비극적 사건

공자가 말했다. “오직 여자와 하인만은 부리기가 어렵다. 잘 대해 주면 기어오르고 거리를 두면 원망한다.” - 논어17-25

나는 덕을 좋아하는 것을 마치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 논어9-17

“선생님께서 본성론과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논어》5-12)라고 평한 자공의 말에는 당연히 ‘여성’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논어》와 공자에 관한 책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추론되는지, 여성이 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일은 개인의 취향으로 떠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공자 시대의 남성들이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이해해야 현대의 여성 문제를 풀어갈 단서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여성의 비극적인 인연은 5대조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자 스스로 말했듯이 공자의 집안은 은(殷)나라에 시조를 두고 있으며, 10대조 할아버지 대부터 송(宋)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5대조 할머니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송나라 태재(太宰) 화부독(華父督)은 공자의 할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었

습니다. 당시 왕위 문제를 두고 정(鄭)나라와 얽히는 바람에 두 나라는 잦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11번의 큰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나라가 피폐해지자 태재 화부독은 이 책임을 당시 국방부장관(대사마)이었던 공자의 5대조 할아버지 공보가에게 덮어씌워 죽여 버립니다. 군주였던 상공이 분노하자 화부독은 상공마저 시해해 버립니다.

공자의 5대조 할머니가 아름다운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비극이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치정 사건과는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당시는 주나라 중심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귀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으며 신분제도는 매우 경직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화부독처럼 다른 귀족의 아내나 약혼녀를 빼앗고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위험한 일에 극성스럽게 매달렸습니다. 이 일은 투계(鬪鷄)와 함께 당시의 악명 높은 중독성 스포츠였습니다. 귀족의 봉지와 자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자식은 계속 태어나고 사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귀족 아들들의 무한 생존경쟁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남성들의 생존 게임을 위해 장기판의 말처럼 다뤄졌습니다. 나라의 기율과 정치가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주나라가 이민족의 발호에 못건뎛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동주(東周)의 시대', 즉 춘추시대 후반기의 정치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 세 살배기와 어린 과부

*“숙량홀은 안씨 딸과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다” - 사마천, 《사기세가》 「공자세가」*

공자에 관한 사료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 받는 사마천의 《사기세가》. 그 중에서도 ‘공자평전’에 해당하는 「공자세가」의 묘한 구절은 2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홀은 키다리인 데다 힘이 장사였으나 아들이 없는 게 흠이었습니다. 그는 전부인들 사이에서 딸만 아홉을 두었으며, 맹피(孟皮)라는 아들이 있지만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씨를 찾아가 구혼을 하였고 막내딸이었던 안징재와 혼인하였습니다. 한 읍을 다스렸던 읍장 노인 숙량홀은 공자가 세 살 때 노환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아내 안징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힌 곳을 알려주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숙량홀의 전 부인이나 시댁 쪽에서는 냉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이 있는 가난한 ‘안씨촌(顔氏村)’으로 옮겼고 때이른 생계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했다. 그래서 비천한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 논어9-6*

공자의 소싯적 상황을 짐작케 해주는 한마디입니다. 여자로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과부로 평생 살아야 했던 설움과 유일한 핏줄인 아들 공자는 어찌면 어머니의 발목을 잡는 돌부리인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어머니 아래서 유년시절을 보낸 인물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6세 때 여의고 아버지보다 34세나 어렸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공자가 홀어머니와 유년시절을 보내는 동안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생겼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샀던 어린 공자와 어린 엄마. 그리고 그들이 처한 가혹한 생존 환경. 공자는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기회를 받지 못하였기에 평생 동안 불안정한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최근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별세와 함께 회자가 된 적장자(嫡長子) 계승 원칙은 공자 시대에는 철칙이었습니다. 최초의 패자(覇者)라는 영광을 얻은 제환공도 정부인의 적장자를 폐하고 총애하는 첩의 아들을 태자로 세웠다가 몸은 굽어 죽고 시체에 구더기가 들끓도록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이제까지 입던 군복을 벗고 과감히 호복(胡服)을 입는 등 열정적인 개혁으로 조나라를 중흥시킨 무령왕도 제환공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세태에서 셋째 부인인 어머니와 자신은 배다른 둘째 아들 처지인 공자 모자가 받았을 냉대가 오죽했겠습니까?

## 공자를 정치적으로 좌절시켰던 여인들

“노나라의 정치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와 같다”(논어 13-7)라는 말처럼 공자는 위(衛)나라에 깊은 애착을 보였습니다. 위나라의 시조는 강숙(康叔)으로 주나라 무왕과 어머니가 같습니다. 공자가 존경하는 주공은 어린 강숙에게 정성스레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쳤고, 강숙은 혼신을 기울여 주공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연 때문인지 공자는 평생 위나라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가장 많이 체류한 외국도 위나라이며, 사랑하는 제자 자로를 잃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임종할 때까지 위나라 정치에 관여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늙은 왕인 위령공(衛靈公)의 젊은 부인이었던 남자(南子)는 당시 잦은 스캔들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호기심이 일었던 남자는 공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공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공자는 자로에게 혼쫓이 나서 화살을 부러뜨려 맹서를 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영공과 환관을 한 수레에 태우고 공자를 그 뒤에 따라오게 함으로써 모욕을 주었습니다. “나는 덕을 좋아하는 것을 마치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치욕감을 느낀 공자가 당시 쏟아낸 한탄이었습니다. 공자는 위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방해로 송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한 공자 일행은 사마 환퇴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정(鄭)나라 성곽 동문에서 길을 잃어 ‘상갓집 개’를 닮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위나라는 남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수십 년 동안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위나라 태자는 젊은 어머니를 시해하려다 실패해 달아납니다. 남자는 늙은 남편이 죽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태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망간 아버지와 아들이 왕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졌고, 공자가 믿고 신뢰하는 제자 자로가 정변에 휘말려 비참히 살해당합니다. 아들을 쫓아내 왕위에 오른 장공 역시 비참하게 횡사합니다. 이민족을 괴롭히다가 이민족의 손에 죽고 말았죠. 그 이후로도 위나라는 ‘시해’가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춘추시대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의 역사에서는 후궁이나 왕의 첩이 왕을 구워삶아서 왕위 계승자인 태자를 쫓아내고 총애하는 여인의 어린 아들을 태자로 앉힌 후에 한동안 정변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자를 정치적으로 좌절시킨 것은 제나라의 기녀들이었습니다. 노나라를 쥐고 흔든 배신(陪臣) 양호의 쿠데타 실패와 망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공자는 중도(中都)라는 지역의 지방장관[재(宰)]를 맡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격인 사공(司空)을 역임하

고, 법무부장관인 대사구(大司寇)에 임명돼 노나라 정치개혁을 착착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노나라 대부로서 정사를 어지럽힌 소정묘를 주살했다. 공자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사를 들은 지 석 달이 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않았고 남녀가 길을 갈 때 떨어져 갔으며,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 가지 않았다. 사방의 손님 중에서 읍에 방문하는 자도 담당 관리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고, 모두 그들이 잘 돌아가게 했다. - 사마천, 《사기세가》 「공자세가」

이웃나라 강대국 제(齊)나라에는 재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나라 대부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연 끝에 팔십 명의 미인을 뽑아 노나라 군주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나라의 미인계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집정대부인 계환자는 몰래 가서 보고, 핑계를 만들어서 구경하고, 대놓고 그들을 찾으며 정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공자는 아래와 같은 노래로 계환자를 꾸짖은 후 모국을 떠났습니다.

저 부인의 입은 [신하를] 떠나가게 할 수 있고,  
저 부인의 알현은 [당신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 수 있네.  
한가하게 유유자적하며 달리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리라. - 사마천, 《사기세가》 「공자세가」

공자의 시대에는 매우 문란했습니다. 문란함이 대세가 될수록 공자의 여성관은 경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역사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공자는 당시의 여성이 올바른 정치를 훼손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부부부’(夫夫婦婦 :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라는 평범한 진리가 전설처럼 까마득해졌다면 여성 자체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여성 자체가 정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 공자로서는 최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자 이후 많은 학자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마치 공자의 밈(meme)처럼 공자의 사상과 정서를 지금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공자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공자의 여성관은 단지 공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사, 광해군 등 귀양 내려온 적객(謫客)들이 아이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자의 여성관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성평등 개선 수준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남존여비가 아직도 엄존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제주가 공자의 여성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춘추좌전》에 기록된 명문 ‘부부부부(夫夫婦婦)’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하며 아직도 요원한 과제입니다. 남성은 남성다운 아름다움이 있고 여성 역시 여성다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성 복장을 하고 남성의 게임에 편입된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나다움’을 가짐으로써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성이 태어나야만 우리는 공자의 경직된 여성관을 시원하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